

# ‘방사능 오염수 방류는 자연 생태계에 대한 핵테러다’

## 아베 정권,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 중단을 위한 100인 공동성명서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고농도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출은 인류에 대한 범죄행위다. 전 인류에 심각한 피해를 안길 끔찍한 결정을 철회하라.

지난 2월 10일 후쿠시마 제 1원전부지에 보관하고 있는 방사능 오염수를 희석시켜 바다에 방출하는 방안이 가장 현실적이라는 보고서가 경제산업성에 제출됐다. 이는 가장 쉽고 저렴하게 방사능 오염수를 처리하려는 아베정부의 꼼수이다.

바다와 대기는 국경이 없다. 방사능 오염수를 증발시켜 대기 중으로 보내 건, 희석시켜 바다로 방류하건 전 세계에 방사성 물질을 퍼트린다는 결과는 동일하다.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원전사고와 동일본 대지진으로부터 일본이 회복되어 부흥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인류에 예측불가능한 대재앙을 퍼트리려고자 한다.

1945년 히로시마·나가사키원자폭탄 투하와 2011년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사고로 핵의 위험성을 뼈에 새겼을 일본 정부는 아이러니하게 후쿠시마 원전의 방사능 오염수가 방사능이 약한 삼중수소가 대부분이라서 별 문제될 것이 없다고 말하고 있다.

하지만 인류 역사상 120만 톤에 달하는 방사능 오염수를 희석하여 배출한 사례가 있었는가. 지구와 전 인류를 대상으로 인체실험을 자행하겠다는 의미로 밖에 해석되지 않는다. 방사능 물질은 무색, 무취, 무미라 인간의 감각으로 피해낼 수 없고 먹이사슬을 통해 몸 속에 계속 축적되어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 알 수 없다.

방법은 있다. 일본 내 전문가들 사이에 비용은 다소 들더라도(해양 방출의 10배 비용) 대기와 바다로 방사성물질을 방출하지 않는 방법이 제기되고 있다. 그 중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10만톤 가량의 대형 저장탱크에 최소 123년동안 보관하는 방법이다. 삼중수소의 반감기인 12.3년의 10배의 기간 동안 저장하게 되면 대부분의 삼중수소가 붕괴되어 사라질 것이기 때문이다. 이미 석유와 액화가스 등을 보관하는 대형 저장탱크 제조와 보관기술을 개발되어 있다. 문제는 저장부지인데 후쿠시마 7, 8호기 신규건설을 위해 확보해 둔 부지, 제염토를 중간보관하기 위해 확보한 부지 등이 거론되고 있지만 일본 정부와 동경전력은 다른 시설이나 지자체 인허가의 어려움 등을 핑계대며 방류로 가닥을 잡고 있다.

그래서 우리 100인은 우리 인류와 생태계를 위해 한 목소리로 다음과 같이 일본 아베 정부에 요구한다.

하나. 자국민과 전 인류를 대상으로 방사능 오염수 방류계획을 중단하라  
하나. 핵 폐기물 해양 투기 규제 국제협약인 런던협약을 준수하라  
하나. 인류 평화의 제전인 도쿄올림픽을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말아라

-김중배 등 각계인사 100인 일동-

아베 정권,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 중단을 위한 동참자 100인

NO	이름	소속	직함
1	강대인	배곧, 바람과물	이사장
2	강명구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3	강미선	이화여자대학교 건축학부	교수
4	강우현	탐나라상상그룹	대표이사/부회장
5	강윤주	경희사이버대학교 / 문화예술위원회	교수 / 위원
6	강은일	단국대학교	교수, 해금연주자
7	고영하	고벤처포럼	회장
8	고철환	학교법인 성신학원	이사장
9	고현숙	(주)코칭경영원	대표코치
10	권태선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11	김대환	국제전기자동차EXPO	조직위원장
12	김문수	서울과학종합대학원	교수
13	김수종	국제녹색섬포럼/한국일보	이사장/전 주필
14	김용택		섬진강 시인
15	김운성		소녀상 조각가
16	김원	건축환경연구소 광장	건축가
17	김원웅	광복회	회장
18	김익중	동국대학교 의학대학	교수
19	김재옥	E컨슈머	회장
20	김정현	4.16재단	이사장 / 화가
21	김제선	희망제작소	소장
22	김창규	나눔교회	담임목사
23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24	김현용	수협 수산경제연구원	원장
25	김홍신	건국대학교	석좌교수 / 소설가
26	문국현	뉴패러다임연구소	대표
27	민만기	녹색교통	공동대표
28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29	박석운	한국진보연대	대표
30	박순애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
31	박재갑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32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33	백낙청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34	백선기	부천시민연합	前 이사장
35	백승헌	법무법인 지향	변호사/ 전 민변 회장
36	서명숙	제주올레	이사장
37	서이종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
38	설훈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39	성해용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	前원장, 목사
40	손 숙	예술의 전당	이사장, 연극인
41	승효상	이로재	건축가, 대표
42	신인령	이화여자대학교	前 총장
43	신상진	미래통합당	국회의원
44	신철영	경실련	공동대표
45	안민석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	국회의원
46	안상운	제일합동법률 사무소	변호사
47	안재웅	한국YMCA전국연맹	이사장
48	양길승	녹색병원	이사장
49	양이원영	에너지전환연대	사무처장
50	양재성	기독교환경운동연대	공동대표, 목사
51	엄홍길	엄홍길 휴먼재단	상임이사
52	염형철	사회적협동조합 한강	대표
53	오은		시인
54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55	우희종	서울대 수의과대학	교수
56	유홍준	명지대학교	석좌교수
57	윤순진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교수
58	윤영호	서울대 의대	교수
59	은희경		소설가
60	이명세	서울환경영화제 집행위원장	영화감독
61	이미경	환경재단	상임이사
62	이부영	자유언론실천재단	이사장
63	이상봉	홍익대 패션대학원	원장, 디자이너
64	이선기	전자신문인터넷	대표이사
65	이수호	전태일재단	이사장
66	이시영	한국작가회의/단국대학교	시인/이사장/초빙교수
67	이시재	가톨릭대학교	명예교수
68	이윤배	흥사단	前 이사장
69	이은형	국민대	교수
70	이정윤	원자력안전과미래	대표
71	이정전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72	이제석	이제석광고연구소	소장
73	이종구	중앙대학교	교수, 화가
74	이지희	w.camp	대표
75	이창현	국민대	교수
76	이태호	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	운영위원장
77	이혜경	한국여성재단	이사장
78	임옥상	임옥상미술연구소	대표, 화가
79	임종대	한신대	명예교수
80	임진택		연출가
81	임현진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82	전수미	화해평화연구소	소장 / 변호사

83	정강자	참여연대	공동대표
84	정념	월정사	주지스님
85	정대화	상지대학교	총장
86	정연순	법무법인 지향	변호사 / 전 민변 회장
87	제정임	세명대학교 저널리즘스쿨 대학원	교수
88	조선희	서울문화재단	前 대표/ 작가
89	조천호	경희사이버대학교	특임교수
90	조현철	녹색연합공동대표 / 서강대 교수	신부
91	지영선	서울그린트러스트	이사장
92	최원행	불교생태콘텐츠연구소	소장
93	최윤	강원민주재단	이사장
94	최재천	이화여자대학교	석좌교수
95	최현섭	강원대학교	前 총장
96	한무영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97	한비아	월드비전 세계시민학교	교장
98	한영수	한국YWCA	전국회장
99	황석영		소설가
100	황윤		영화감독